서정시

총련마스크

김성철

분회에서 동포들에게 준 마스크
몹쓸놈의 전염병 함께 이겨내자
건강한 몸으로 애족애국 계속하자
집집마다 나눠준 마스크, 총련마스크

분회에선들 오죽이나 생각이 많았으랴
어수선한 이때
사람을 만나러 다니는게 과연 옳을가
문전거절을 당하지나 않을가

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
인간의 정이 그리웠다고
조직의 손길이 정말 고맙다고
동포들 저저마다 목소리 적시였나니

정면돌파전의 실마리
여기서 찾은듯
분회위원 가슴마다 결심도 굳세여져라

동포동네 안녕을 기어이 지키리
불같은 그 심장앞에선
사람들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열리리
무서운 병마도 싹 길을 비켜서리

병이 아니 옮으라고 주는 마스크
그러나 나는 옮았으면 좋겠네,
분회위원들 뜨거운 정과 열이

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
그 마음 옮을것 같아
그래서 먼저 찾고싶은
세상에 다시없을 총련마스크!